

학부모신루

청주 0431-52-9541 부산 051-247-1795
전주 0652-231-6242 인천 032-525-8342
마창 0551-45-0341 대구 053-741-7366
여수 0662-62-6541 익산 0653-834-0347
울산 0522-92-8053/4 여천 0662-84-5116

발행인: 오성숙 발행처: 종교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5가 22-1(2층) 전화: 675-9068 634-6508 631-0976 천리안 · 나우누리 ID HAKBUMO (FAX:634-4359)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이론보다 실기가 중요

어린이에게는 차조심하라는 말보다 부모가 아이손을 잡고 직접도로에 나가 실제 체험과 함께 설명을 해 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난달 부산 초량동에 첨단 컴퓨터
시물레이션 장비를 갖춘 어린이 교통학
교 '스타지오 교통나라'가 문을 열었
다.

삼성화재가 사옥에 마련한 이 학교는
흥미관, 역사관, 체험관, 정리관 등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같은 학교가 곳곳에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사립·특수학교는 저조

학운위 위원 구성을 보면 전체 위원 중에 학부모위원이 45.7%, 교원위원이 37.4%, 지역위원이 16.9%로 집계됐다.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직업을 살펴보면, 주부가 40.7%로 가장 많고 이어 사업가 25.8%, 회사원 6.8%, 공무원이 5.4% 순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55%로 여성보다 많았고, 학부모위원은 여성이 68%로 나타났다.



학부모만평
이숙자

'96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일러스트레이션 부문 유수작 !!!

글/리미스 그림/이은 그림책 대상연령/8~13세 가격/7,000원



폭죽소리

“꼭죽소리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이다. 일본제국주의시대, 중국 사람에게 팔려간 조선족 소녀의 슬픈 운명을 그렸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어른이 꼭 한번 읽어야 할 책이다.” -윤구병 (전 충북대 철학과 교수)

길벗어린이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3-16 TEL.322-6012 독자상담 무료전화 080-023-7979 (친구친구)

아름드리 어린이 문학
이오덕 선생님이 우리 말로 다듬어 주시는 세계명작

세계명작도 우리말이 중요합니다

딱딱한 글말과 어려운 한자어. 미국말법으로 가득한 글은
우리말을 배우고 익히는 어린이들에게 글맛, 명작의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아름드리 어린이문학은 감동이 생깁니다.



대상연령 9~14세 가격/각권 4,000원

- 대장암 9~14세 가격/4천 4,000원
- | | |
|-----------------------------------|-----------------------------------|
| 1. 작은 새와 친사의 알 이야기 (카를 제코프 지음/채근) | 4. 푸우야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엘린 밀튼 지음/영국) |
| 2. 둘리를 선생 아프리카로 간다 (휴 로프팅 지음/미국) | 5. 둘리를 선생의 바다여행 (휴 로프팅 지음/미국) |
| 3. 곰들이 푸우는 아무도 못 믿어 (엘린 밀튼 지음/영국) | |

논 설

방학은 놀며 휴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엄마의 손을 잡고 나들이하는 어린이들의 표정이 맑고 청량하다. 공부와 학원에 염증난 우리 아이들에게 방학이 줄 수 있는 선물이다. 그러나 또 한 편에는 방학중임에도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청소년들의 지친 모습이 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학교생활과 학원다니기에 지친 아이들에게 방학은 놀며 휴식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재충전의 시간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되는 현실은 어떠한가.

방학이 없는 학교가 늘고 있다. 강제적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이 문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들어 보충·자율학습이 학교현장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로부터 중학교까지 더욱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평준화 해제지역 중학생들의 방학중 보충수업으로부터 평준화 지역인 서울 등지로까지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방학중에도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 두고 있음은 정말 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겠다는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겨우 1년여 지났건만, 개혁이 무색해지고 있다.

이 기회에 강조하거나 사교육비 절감방안이라고 해서 교육부가 앞장서 학교간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과외란 아이들에게 정규수업시간의 연장을 의미할 뿐이며, 오늘의 현실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시금 학교과의 후 학원과의로 내몰림을 의미한다. 강화된 학교과의는 입시교육의 강화를 의미하며, 이 속에서 죽어가는 것은 아이들이다.

보충수업의 명목으로 지급될 때보다는 약간 많아진 과외수당 때문에, 또는 내키지는 않지만 학교장과 학부모들의 압력을 거부하지 못한 교사들이 방과 후 또는 방학중의 과외로 내몰릴 때, 교사들은 교과연구와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정규수업에 충실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학교사회에 야기시킬 것이다.

교육부는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며, 아이들과 선생님을 묶어매는 '학교 안 과외허용'이라는 미봉책으로 학부모들을 현혹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학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왜곡된 의식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작되면서 보충·자율학습의 강화를 주장하는 학부모들의 압력으로 인해 괴롭다고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내 민주적 대의기구로 자리잡아 가기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학부모들의 압력이 교사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기피, 방관하고 있다.

아이들이 집안에서 쉬는 것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해서 아이들을 학교과의와 학원과의로 내몰기만 해야 되겠는가.

이 학교, 저 학교에서 날로 강화되는 보충수업, 자율학습, 학교·학원과의가 아이들을 지치고 병들게 만들고 있다. 여름방학! 아이들이 공부로부터의 찌들림에서 벗어나 편히 쉬면서 저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맘껏 해보도록 배려하는 현명한 부모의 자세가 아쉽다.

◆교·육·단·신◆

중·고교 외부급식 허용

교육부는 학교 안에 별도로 설치된 조리실에서만 공급할 수 있도록 한 현 학교급식법령 규정을 개정하여 이르면 2학기부터 중·고교의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학교별 급식위원회에서 외부급식을 결정해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급식제도 개선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말까지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성적평가 방법

2차개선안 나올 전망

종합생활기록부의 성적평가 방법에 대한 2차 개선안이 8월 초순쯤 나올 전망이다. 중생부 성적산정에 대한 이번 2차 개선안에서는 '학생 서열화를 피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한다'는 중생부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석차백분을 산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보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49년만에 교육법 전면 개편

현행 교육법이 49년 만에 전면 개편돼 98년부터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된다. 또 학교장의 징계, 처벌권 가운데 체벌의 의미를 포함한 '처벌권'이 삭제되고 학생 징계시 청문절차를 도입해 최소한의 변론기회가 주어진다.

중·고교 중퇴청소년

재입학 가능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중·고교 중퇴 청소년들에게 재입학의 길이 열리게 된다. 내무부는 8월말까지 95년 이후 중·고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재입학 등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재입학을 원하는 중퇴자는 학교 교사의 개별 상담을 통해 정규학교 복교자와 산업체부설학교 복교자로 분류해 복교를 위한 적응훈련 및 정신교육 등을 실시한 후 복교하게 된다. 시·도는 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취업을 원할 경우 고용촉진훈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하는 한

편, 본드 중독자 등은 재활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내 성교육, 적극적인 '예방교육'으로 전환

그동안 '순결교육'에 머물러 온 학교내 성교육이 보다 적극적인 '성폭력에 방교육'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을 그동안 순결을 강조하던 방식에서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쪽으로 전환하라고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초·중·고교에 지시했다.

방학맞이 장애아 위한 재활 프로그램

여름방학을 맞아 장애 어린이의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이 잇달아 선보인다.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가 마련한 '발달장애아 치료 레크리에이션 여름방학교실'을 비롯, 성동장애인 종합복지관의 '형제캠프', 서울시 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의 '96년 장애청소년 수련회', 서울 YWCA 가락종합사회복지관의 '발달장애아 놀이교실'이 그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야간 인성교육 시범학교 설치, 운영

경기도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일선 초등학교에 '야간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설치, 운영한다. 수업은 1주일에 두세 차례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 이뤄지며 수업내용은 생활영어와 컴퓨터 등 학생들을 위한 것과 학부모들을 위한 독서와 서예, 배드민턴 등으로 꾸며진다.

소규모학교 9백여개 통폐합

학교시설 현대화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농어촌 지역 등의 소규모학교 9백여 개가 통폐합된다. 교육부가 임시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00년까지 본교 203개, 분교장 317개 등 모두 520개의 소규모 학교를 폐교, 인근 학교에 통합하고 주민 진출로 학생수가 줄어든 본교중 4백 28개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등 모두 9백 48개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어린이들의 창된 친구 <산하어린이> 시리즈

◆<산하어린이> 통신 판매
전화 한 통으로 <산하어린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전화 392-7641(대) 팩스 313-2582

이오덕·권정생·위기철·신경림·이현주·윤기현·지동환·강정규·이재복·임길택

한국 아동문학을 빛낸 작가들 그들이 바로 <산하어린이> 작가들입니다

전국의 많은 학교와 선생님께서 '학급 문고'와 '독후감 쓰기' 글감으로 자신 있게 추천하는 <산하어린이>는 그 동안 서울 YWCA, 서울 YMCA, 문화체육부, 어린이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마산 YWCA, 좋은책 만들기 운동 연합회, 창원 YWCA, 군산 YMCA, 어린이문화진흥회, 부산 YWCA 등 많은 단체로부터 우수 아동 도서로 선정된 권위 있는 책입니다.

●자신 있게 권하는 책

산하어린이 86
나는 무슨 띠일까요

띠에 얽힌 궁금궁과 재미난 이야기를 한데 엮어 놓은 열두 동물의 열두 가지 이야기. 흥미 만점 공부도 만점.

산하어린이 88
별난 박물관 별난 이야기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박물관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국보급' 책. 박물관마다 보물 같은 이야기가 하나, 이야기마다 박물관이 하나씩.

●생애이야기

- 10 울면서 하는 숙제 이오덕
- 11 차돌이는 한경박사 김현아
- 16 너에게만 보여 줄게 오민진
- 17 비오는 날 일하는 소 한 교실 어린이
- 18 공부해 왜 해야 하는 한 교실 어린이
- 34 혼자서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35 날마다 쓰는 아이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 41 나뭇잎 교실 윤태규
- 51 천원 기념품 탐험대 나은경
- 61 속담 하나 이야기 하나 임덕연
- 72 이오덕 글 이야기 이오덕
- 81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달력 교육문제연구소
- 86 나는 무슨 띠일까요 최향숙
- 90 한글이랑 한글이랑 박성환

●역사이야기

- 2 연오랑 세오녀 조호상
- 3 4 5 임궏정과 임궏정재들 1·2·3 김우일
- 31 서울 600년 이야기 김근태
- 50 흥미로운 국보여행 배봉기
- 52 53 꼬마 단군 1·2 정우상
- 58 59 60 소년 독립군 주몽이 1·2·3 김경민
- 83 신기한 세계여행 김윤경
- 85 신비한 지구탐험 김운성
- 88 별난 박물관 별난 이야기 허완·김재곤
- 안동이야기
- 7 전태일 위기철
- 33 윤동주 정진규
- 49 신채호 김서경
- 73 목수의 아들 예수 최선주

●과학이야기

- 38 39 40 과학을 빛낸 사람들 1·2·3 유한준
- 42 43 재미있는 동물이야기 1·2 오창영
- 62 끈질기게 물고 들어간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3 끊임없이 파고든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64 악착같이 달라붙은 실험관찰이야기 김기영
- 91 북극곰곰 물 속 친구들 박윤규
- 옛날이야기
- 27 아기 장수 조호상
- 75 깨비 깨비 참도깨비 김종태
- 77 백두산 산신과 매산이 이야기 동네
- 78 천지와 들바늘 이야기 동네
- 87 일만이천봉 이야기 고계 이야기 동네
- 예술이야기
- 36 민요여행 신경림

68 열두구 국악이야기 들어보세 김태균

- 74 열두구 우리 악기 배워보세 신장식
- 창작동화
- 1 참나무 선생님 박상규
- 6 서울로 간 허수아비 윤기현
- 8 여우야 여우야 뭐 하니 김 목
- 9 허수아비의 눈물 권정생
- 12 해가 뜨지 않는 마을 윤기현
- 13 신나는 교실 윤태규
- 14 바보와 바보 박상규
- 15 생명이 들려 준 이야기 위기철
- 19 말꼬마이 이상선
- 20 허투루나 허투루 이준연
- 21 삼계동 아이들 노경실
- 22 따뜻한 사람 박상규

23 커다라 풍선 장수 아저씨 유재홍·이현주 외

- 24 도둑 마을 장문식
- 25 최초리와 훈장 윤지현
- 26 동수의 세번째 비밀 유순하
- 28 고독한 가수와 꼬마배우 이상선
- 29 통일은 참 없다 이오덕·윌름
- 30 섬마을 아이들 신승행
- 32 아이쿠나 호랑이 윤태규
- 37 어라서는 독재자 윤기현
- 44 친구 없는 못살아 이재복·윌름
- 45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이재복·윌름
- 46 작고고 작고고 작고고 이재복·윌름
- 47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이재복·윌름
- 48 김철자의 매주공 이재복·윌름
- 54 불꽃놀이와 노래 지동환

55 사랑이 된 풀꽃장수 박상규

- 56 집을 나간 소년 현 덕
- 57 허수아비 우리 옆집에 살고 있네요 권정생
- 65 피리 부는 소년 이주홍
- 66 67 서울에 온 어린 왕자 1·2 오봉옥
- 69 느릅길 아이들 임길택
- 70 71 큰소나무 1·2 강정규
- 76 현동아와 검둥이 이오덕·권정생 외
- 79 불귀신 아버지 김학철 외
- 80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권선자 외
- 82 비를 부르는 소년 김윤배
- 84 동글이와 덩굴이 홍윤희
- 89 허투루나 허투루 이재복·윌름

도서 출판 산하 서울시 마포구 아현2동 338-10

◆ 통일 이야기

“이제 과외공부가 필요할 때다”

아이들이 분단의 참모습 보도록

다시 8.15가 가까워진 모양이다. 마치 남대문시장 명절대목처럼 이곳 저곳에서 사진이니 원고니 부탁들이 밀려드는 것을 보면 말이다. 적어도 이때쯤이면 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교묘하게 통일이 된다.

그렇게 통일된 마음들은 일년에 한 번 하는 숙제검사 받는 양 숙제를 마치고 나면 다시 뿔뿔이 흩어져 버린다. 그것은 우리가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혹 아픔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 몸의 상처가 아니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는 자칫 우리의 어디가 아픈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아니 더 냉정하게 보면 아픈 곳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적당히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옳겠다.

한때는 신세대였다가 요즈음은 사이버 혹은 디지털세대라 불리는 20대 이하들에게 그 문제는 심각할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미 학교교육에서 통일에 대한 난감함을 맛본 세대라 여겨진다. 그런 학교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공을 앞세우며, 그들은 통일이라 이야기하지만 분리정착을 주입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학교교육만으로 자

녀들이 올바른 국가관이나 민족관을 가지길 기대하는 것은 몹시 곤혹스러운 노릇이다.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나 뭐니 하는 것들을 보면 학생들의 상당수가 통일은 불편한 것이라 답하고 심지어 통일은 해서 뭐하느냐는 대답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다. 그건 어쩌면 학교교육에 아주 충실한 모범학생들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이 교육을 그렇게 시켰고, 아직 분

영, 수에 대한 과외공부가 아니라 분단과 관련된 별도 과목의 과외가 필요한 때라 여겨진다. 그 허황된 반공교육의 우상이었던 반공소년 이승복의 일화가 조선일보 기자가 꾸며냈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통일을 이야기하지는 말자. 단지 아이들이 분단을 철저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아이들에게 강요가 아니라 분단을 철저히 보여주자. 우리는 본디 하나였는데 이렇게 둘로 갈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블랙코미디 같은 일인가를 보여주고 나서 그들이 통일을 판단하게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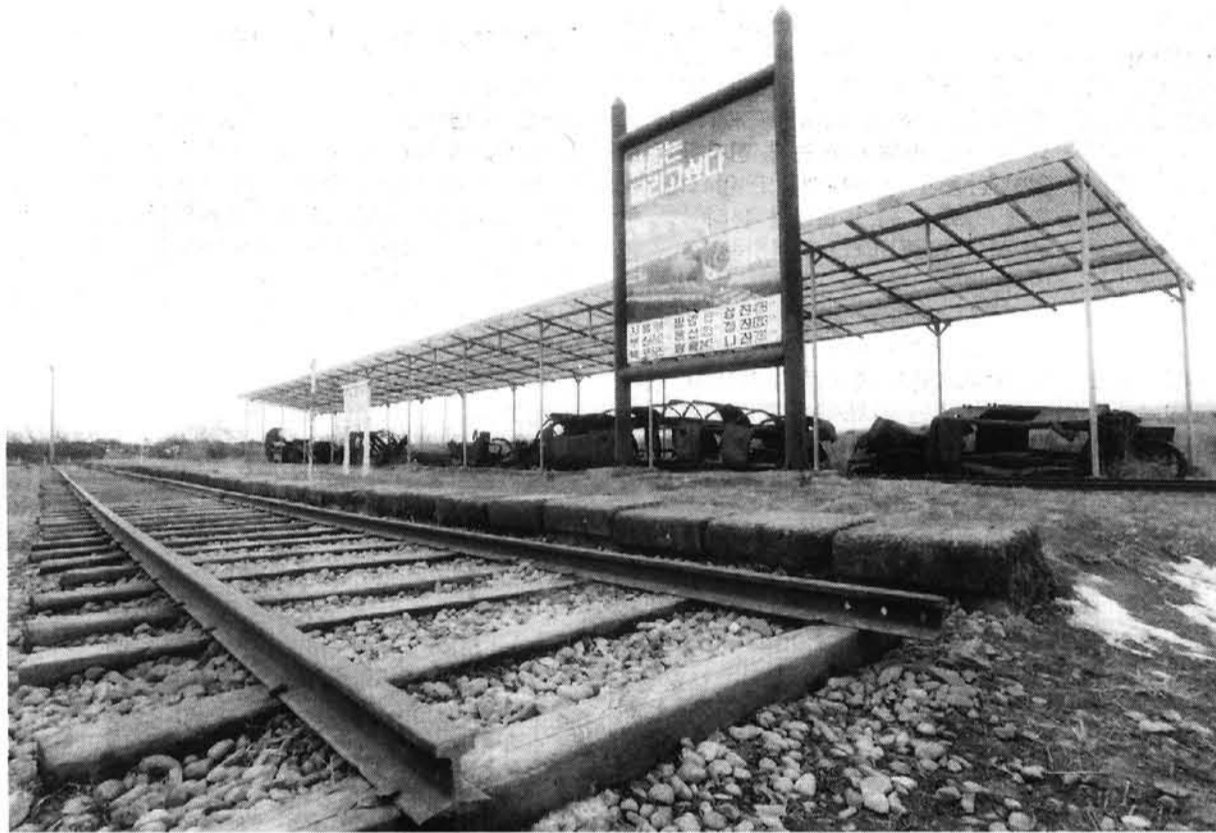
또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른들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 같다. 부모들의 바른 가치관이 아이들을 곧게 만들기 때문이다.

적어도 올 여름방학에는 아이들과 휴전선 근처라도 어슬렁거리다 반쪽 땅보이는 곳에 앉아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생각하는 북한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반쪽에 대해 이야기해 보는 것도 바람있을 듯하다.

이지누(사진작가)

◇ 굽긴 철교가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 한다. (사진:이지누)



별력이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로서는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또 그걸 가지고 요즈음 아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학생들을 나무란다. 그런 악순환적인 모순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도대체 우리 나라가 원래는 하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북쪽에 사는 동포들이 우리와 다른 것은 같은 민족이라는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

이제는 과외공부가 필요할 때다. 국,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이렇게

학부모위원 문제 속 어려움 겪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과 운영에 문제

학교운영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두 달여 되었다. 그러나 학부모회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학부모회 조항을 넣는 데 애로가 많다.

또 의식있는 학부모위원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의, 특히 과거 육성회 임원 하던 학부모들의 의식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 학교장의 보수적인 태도, 기득권에 대한 집착 등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삼 너무 실망하지 말아야 하겠다. 방학 동안 여유와 기운을 찾으며 다시금 운영위원회의 올바른 활동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현실은 살피야 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으며 그만큼 학부모들은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하고 싶어한다. 학부모회를 소집하여 학

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자.

우리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현장을 살리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자녀들에게 신바람나는 학교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명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의 문제점으로 △학교규모에 비해 위원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 △소위원회 구성에 애로사항이 있고 몇 명 불참하면 별다른 이유없이 간선으로 한다는 점 △교원위원의 자격을 제한한다는 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생단체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가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학부모회와 대립하게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규정 개정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대처하자.

운영상 문제점으로 △회의가 회의답지 못한 점 △교장이 위원장 권한을 침해 △조례에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교감 혹은 서무책임자(간사)가 회의에서 발언하는 점 △회의일시를 미리 알리지 않아서 참관자가 없는 점 △운영위원의 연락처를 알리지 않아서 학부모들의 건의사항이 없는 점 △학부모회 소집이 원활하지 않은 점 △특별활동에 교사들의 협조가 부진한 점 △학교 중요 사안을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 임의로 다루는 점 등을 들 수 있겠다.

끝으로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해 얘기해 본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액수를 결정하는 곳은 학부모회임을 교육부에 확인하였다. 3기분 수업료와 함께 학교운영지원비가

책정되어 고지서가 발부되었는데 학교장과 학부모회장 명의로 되어 있다.

고지서 발부 전에 미리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그에 대한 제시나 아무런 협의 과정도 없이 고지서를 발부한 것은 명백히 학부모회와 학부모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학부모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위임하였을 때 한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액수를 책정한다고 한다.

학부모위원들은 계속 공부하는 자세로 교육부, 교육청, 참교육 학부모회 등과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가자. 학교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학교는 많이 발전할 수 있다.

구명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위원장)

◆ 영어 조기 교육 쟁점

초등학교 3학년 영어 내년부터 실시

사교육 지나치게 과열 - 유치원에서도 교육

• 참석자: 김정도(영어강사)
김정숙(본회 중서부지부장)
정기훈(서울 초등학교 교사)
황계희(서울 초등학교 교사)

• 사회: 송주비(본회 출판국장)
• 일시: 7월 24일 늦은 4시
• 장소: 본회 당산동 사무실

사회: 날씨가 더운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부터 학교교육으로 흡수될 초등학교 3학년의 영어교육으로 요즘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 좋은 의견을 듣고자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영어조기교육의 현실이 어떠한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어조기교육 현실

정기훈: 학교에서의 실태를 말하자면 통계상으로 90% 이상의 학교가 '우리 학교도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정규교과시간이 아닌 아침 자습을 이용해 생활영어 테이프를 틀어놓을 뿐 지도는 하지 않는 수밖에 결핍기 식이라고 할 수 있지요.

김정숙: 정작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그룹과외나 학원, 학습지 등 여러 방법으로 시키고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실시하겠다는 발표 이후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영어교육비를 따로 받고 시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황계희: 전에는 그래도 중학교를 대비해 5~6학년이 되면 시키던 것을 초등학교 3학년의 정규 교과 선언 이후 유치원으로 낮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김정도: 사실은 조기교육을 논하기 전에 왜 영어조기교육을 시키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국제화·세계화 발언 이후 조기영어교육이 결정되었지만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나 대책도 없고 공청회도 조기교육을 기정 사실화한 채 열어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없었습니다. 영어조기교육은 오히려 교육부측에서는 정책만 발표한 채 사교육에만 의존하는 형태이고 언론도 무책임하게 이를 부추기는 형태니 학부모들은 덩달아 불안해하는 게 현실이지요.

사회: 요즘 매스컴에 보면 영어교육을 위해 초등학생들을 해외연수까지 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 왜 이같이 과열을 빚게 되었을까요?

실시 앞두고 사교육 과열

정기훈: 해외연수의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조기교육은 세계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받아들이자는 건

데 지금의 영어교육 열풍은 영어를 우리 말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쓰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어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밀려가는 추세이고 학부모 자체도 자기 자식이 왜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진지한 검토 없이 남들이 다 하니깐, 또 안 하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 피해를 본다니까 하는 식의 군중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도: 학부모들은 왜곡된 언론보도나 끊임없이 밀려드는 영어학습지, 학원연합회들의 광고를 보면서 내 아이만 안 시키면 뒤처지는 게 아닌가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지요.

김정숙: 조기교육의 근원은 이제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영어교육 어떻게 실시되나

황계희: 1단계로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후년에는 3, 4학년 식으로 4단계로 실시하게 됩니다. 검인정 14개 교과서 중 하나를 택해 사용하게 되며 영어 연수 120시간을 받은 교사를 3학년 담임으로 우선 배정해 주당 2시간 수업을 하게 됩니다. 120시간 연수를 받고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에요. 교육부에는 초등학교 교사의 영어지도에 대한 인적 자원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김정도: 그 정도의 연수만으로 공공교육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

자기 말을 확실히 쓰고 구사하게 하거든요. 우리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도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안되는데 우리 국어교육이 바로 서지 않은 실정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사회: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조기영어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이고 이 시점에서 학부모가 가져야 할 바른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개선책과 학부모 자세

정기훈: 내년 실시는 이제 기정 사실이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의 조기영어교육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시행착오는 예견되는 것이므로 7차 교육과정 개편 때는 제도수정을 하게 되리라 봅니다. 제일 큰 우려는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심적인 부담인데 학부모들이 아이가 못한다고 상대적인 평가를 삼가고 너무 꾸짖지 마시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교육방송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테니 자료로 활용하면 좋겠지요. 반대쪽 목소리가 커지면 개선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김정도: 저는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내년 영어교육방침을 철회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교사수급이나, 교재개발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는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군요. 영어조기교육 실시로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학원이나 학습지 판매회사, 외국 연수기관이고 사교육비로 인한 피해는 학부모가 지게 될 것이 뻔한데 자기 문제를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자세도 문제가 아닐까요?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여 모든 여건이 제대로 갖춰질 때까지 시행을 늦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황계희: 저도 내년 실시가 유보되기를 바랍니다만 실시가 된다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겠지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려면 언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겸한 세계 교과목

을 더불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김정숙: 저는 학교선생님을 일단은 믿고 싶고 영어교육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지나친 조기영어법에 대해 기준을 설정해 감독을 하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비디오 교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사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요즘 일고 있는 영어조기교육 문제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봉호 기자 정리)



◇ 왼쪽부터 황계희, 정기훈, 송주비, 김정숙, 김정도

교사수급 교재개발에 문제 제도수정 불가피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해야

지 영어교육을 10년 이상 받았음에도 언어의 실용성은 외면한 채 지식 위주로만 가르쳐 온 것에 대한 반성, 또 발음 등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회화 위주의 생활영어를 한다고 발표는 했지만 중등학교와의 연계성 문제도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시를 무시할 수 없으니 남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 시키고 있어도 아이의 실력을 검증할 길이 없으니 학부모로서는 그것도 안타까운 점입니다.

사회: 내년부터의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어떻게 실시되나? 또 교사 수급 문제나 프로그램 그리고 국어 교육에

담보로 실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또 교육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교육이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기훈: 사실 초등학교 교사는 여러 과목을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도 어학으로서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재, 시간수 등의 문제와 아직 우리 말의 언어체계가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다른 언어와의 혼란이 더 문제지요.

김정숙: 저는 독일에서 6년간 생활하다 왔는데 그곳에서는 한 학기 동안 알파벳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 다음은 작문, 문장부호 등을 정확하게 지도해

◆ 가족이 함께하는 성 이야기(13)

사랑은 노력 과정에서 유지 인간의 힘은 순간적 매력

(2) 사랑은 영원한 것
두 번째 왜곡된 사랑의 각본 중 '사랑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 부분이지요. 따라서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없이 유동적이고 변덕이 심할 수 있는 한 인간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신(God)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한 사랑이 영원하기를 더욱 갈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가 얼마 후 앙숙으로 변하기도 하고, 끔찍할 정도로 싫었던 학우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간의 본질을 일찍 깨닫는다면 그만큼 친구관계도 이성관계도 매우 성숙하게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나 나도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겠지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가치는 감기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태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사랑에 대한 '영원한 노력'을 게을리할 오만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을 영원히 지속시키려는 '꾸준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성숙한 사람보다는 오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종말이 없습니다. 과정만이 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결혼을 용기 있는 자만이 해야 합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사랑이 식더라도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될

때 결혼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면, 결혼 후에 얼마든지 식을 수 있는 사랑을 식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즉 결혼은 사랑의 결실을 키워 가는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영원할 수 없는,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진정한 '하나됨'을 말해야겠지요. 자신의 내면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노력하는 사람, 자기만이 아니라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 줄 만한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끼리의 만남 속에서 인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키워 갑시다. 인간의 외모란 순간적인 매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서.

윤양현(여성학자)



◆ 열린 학습론

'교과서 글읽기'를 잘 하려면 숲과 나무 함께 보는 방식으로

한나라야! 오늘은 우리 함께 글읽기
를 어떻게 할까에 대해 생각해 보자꾸나! 교과서에 나온 '독서와 인생'(또는 인생의 지혜로서의 독서)이란 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우선 이 글이름을 보고 어떤 머릿속 그림이 그려지니? 그냥 내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래, 이처럼 우리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등에는 아직까지도 나라 잃은 시대를 산 분들의 글이 많이 실리고 해서 우리말이라 하기엔 여전히 글이 어렵고 표현도 매끄럽지 못한 게 있지.

그러면 글이름(제목)을 내 식으로 바꾸어 붙여 볼까? 왜냐하면 글이름이란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필요한 열쇠의 구실을 하고 모르지기 글은 내가 읽고 글 속에 담긴 뜻을 아는 데 있으니 내 식으로 바꾸는 게 당연하겠지? 그렇지! '독서를 많이 하면 인생이 알차게 된다.' '글을 읽어야 세상이 즐겁다.' '삶을 가꾸는 글읽기' 등 여러 가지로 말해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새롭게 글이름을 붙여 보면 내가 읽을 글의 전체 모습이 쉽게 그려지거나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단다.

두 번째로는 왜 작문 시간에 '글은 사람이다'란 말을 들어 봤지? 그 글을 알려면 글쓴이가 산 시대 배경이나 글쓴

이의 삶을 알아보는 게 좋겠지. 예를 들어 이 글의 지은이인 이회승님 경우는 이른바 식민지 시대를 산 지식인이니. 그러면 이분에 대해 인물 사전이나 자습서 등에서 간단히 요약된 것으로 이분을 알 수 있을까? 글썄, 내가 생각하기엔 한 사람의 뒤편을 알려면 그와 한 시대를 같이 살면서 다소 다른 생각을 지니고 달리 삶을 누린 분과 견주어 봐야 글쓴이를 좀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봐.

셋째로는 글이 처음 실린 곳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 대체로 교과서에 실린 글은 편집을 하여 실리기도 하기 때문에 본디글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 또 그 글이 실린 곳이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도 알 수 있으니. 이와 함께 반드시 첫 문장을 읽기 전 문단 표시를 네모로 그려 가며 읽으라 거야. (우리 이걸 흔히 눈에 띄네/형식 문단이라 하지) 그래서 한 편의 글을 읽을 때 숲을 보며 나무를 보는 식으로 읽길 바래. 각 문단에 들어 있는 주제 문장도 찾아보면서 너무 찬찬히 보기보다 글의 흐름을 잡아가는 방식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더 좋다고 봐. 그래, 그럼 오늘은 간단히 글읽기 요령을 살펴봤구나. 이만 줄이마.

김 두루한(서울 시흥고교사)

◆ 상담소 안내-서울 YMCA 청소년 상담

전문영역 정해 상담 실시

청소년 운동체로서의 YMCA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의 4가지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청소년 성교육 상담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갖고 건전한 성의식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며 청소년의 성적자아갈등, 성지식, 이성교제 및 친구관계 등과 관련하여 하루 평균 30~40여 통의 전화 상담이 오고 있다. 면접상담, 전화, 서신, 집단상담을 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상담을 받고 있다. 또한 방학중 중·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8월 19일~21일, 오후 3시~6시) '청소년 열린 성교실'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시청각교육 및 그룹토의, 연극을 통한 참여 그룹창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참가문의: 599-8462 상담전화: 735-1551, 735-1563)

▶ 청소년 쉼터

가정, 학교, 사회에 속해 있으면서 어느 한곳에도 발붙이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 결손가정의 청소년들, 특히 가출한 청소년들을 일시 보호하는 곳으로 1992년 10월에 문을 연 '청소년 쉼터'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이 소속된 곳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가출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료 숙박은 물론 기본적인 활동에 필요한 용돈 지급, 의료서비스, 대안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상담전화: 737-6349)

▶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실

청소년들에게 진로진학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결정을 돕기 위한 상담과 각종 심리검사가 있다. 그중 진로상담검사 프로그램은 개별상담을 한 후 흥미검사, 적성검사, 인성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직업선택검사의 5가지 검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가장 만족스러운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타 성격검사, 흥미검사, 학습습관검사, 지능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데 비용은 대략 3천원~2만원 사이이다. (상담전화: 676-6114)

▶ 청소년 약물남용예방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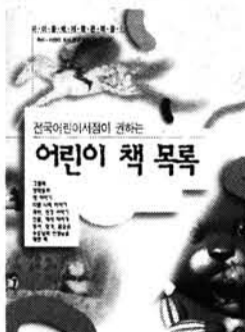
오늘날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 속에서 생기는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약물로 일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 약물남용에 대한 홍보와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고 약물남용 문제를 가진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약물보다 즐겁고 보상적이고 수용할 만한 대안을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전화: 248-5662)

학부모...어린이를 위한 책

전국어린이서점이 권하는

어린이 책 목록

도서출판 논장



TV나 컴퓨터에 빠져 있는 요즘 아이들이 활자 가득한 책과 친숙해지기란 무척 힘들다. 이런 아이들이 모처럼 책을 읽는다 싶어 보면 흥미 위주의 오락 공포물, 불량 만화이기 십상이다.

책을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어린이 스스로 좋은 책을 골라 읽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부모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좋은 책을 찾는 부모와 아이들에게 '어린이 책 목록'은 귀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현재까지 출판된 어

린이 책 중 정서와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골라 연령별, 내용별로 분류해 소개하고 있다.

'어린이 책 목록'에 소개된 책은 유아부터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줄거리나 내용 설명을 간단히 곁들여 아이에게 맞는 책을 바로 고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또 전국의 어린이 전문서점까지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전집보다는 나이에 맞는 책을 한 권씩 장만하고 어린이 책을 어른이 먼저 읽어본 후 아이들에게 권하라고 이 책에서는 말한다.

어린 시절에 읽은 좋은 책 한 권은 어른이 되어 읽는 열 권의 책보다 낫다고 한다. 이번 여름방학 '어린이 책 목록'을 읽어 본 후 아이들 손을 잡고 가까운 어린이 서점을 찾아 보면 좋을 듯하다.

(송주비 기자)



학부모 한마당

독자와 함께 하는 '학부모 한마당'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직접 찍은 교육사진이나 4매의 원고를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곳=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 22-1(2층) 학부모신문
 독자한마당 담당자 우편번호 150-045
 전화=02-634-6508, 675-9068 FAX=02-634-4359
 전리안 ID HAKBUMO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대화의 장 목말라하는 학생들

자리매김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통로 중 '상담자원봉사자'는 해당 교육청에서 일정 기간 무료교육을 받은 후 학교 진로상담실을 통해 직접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상담자원봉사자는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자기 신뢰감을 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지난 봄 나는 이 교육을 받고 집 가까운 중학교에 상담자로 나가며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에 많은 유연성이 길러졌음을 느낀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서로를 모르며 대화의 장 마련에 목말라하는지 알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었다.

나는 '초보 상담자'이므로 개인 상담보다는 집단 상담을 주로 했다. 집단 상담이란 한 명의 상담자가 열 명 안팎의 학생들과 함께 자리하고 하는 상담을 말한다.

집단 상담에서 하는 심성개발 프로그램은 인간관계 학습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잠재능력을 찾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경험함으로써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순화시키게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한정된 시간이 아쉽다. 상담 후 아이들이 적은 소감문 일부에도 그런 아쉬움이 배어 있다.

"상담 시간에 친구들한테 많은 것을 배웠지만 하고 싶었던 말을 다하지 못해 아쉬웠어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소 친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더 가깝고 친해진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마음을 열어 고민을 털어 놓고는 비슷한 고민으로 마음 아파하는 친구를 보고 애정을 느끼는 모습들. 친구들의 좋은 점을 거울 삼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하는 모습들, 이런 아이들의 모습과 이야기 속에서 나는 보람을 느낀다.

중·고등학교에선 보통 '진로상담실'을 말쑥꾸러기나 문제 학생을 선도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그곳에 불려가면 반성문을 쓰거나 벌칙이 주어 지므로 사실이기도 하다.

상담자원봉사자제도는 학교 상담실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와 유익한 프로그램이 일선 학교의 인식 부족과 참여 봉사자의 부족으로 모 든 학교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아이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절대 적이라 한다. 학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학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아이들이 보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또 긍정적 자아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여 충분한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호정애(성남시 분당구)

며칠 전 일이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인 큰아이가 가족신문 숙제를 들고 왔다. “엄마, 선생님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한 장에 해오라고 했어.” 아이는 종이 한 장에 자기소개랑 자랑 등을 적고 색칠을 하더니 공간이 남자 조언(?)을 구 했다.

“우리 가족 소개란을 만들어 보렴.” 그래서 아빠부터 적어 나가던 아이는 자신과 동생란까지 메우고는 멈췄다. “엄마, 엄마는 뭐라고 적지?” “네가 평소에 생각하는 엄마를 적어. 네가 보는 엄마.” 펜을 들고 한참을 있던 아이가 “엄마, 아무 생각도 안 나. 잘 모르겠어.” 순간 쿵쥔거리며 가슴에서 치오르는 말 들.

“애가 정말... 나라야, 나라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가 반겨주고 맛있는 점심도 해주면 좋겠지?” “응.”

“비 오면 우산 들고 학교 정문에 마중 나가 주는 엄마면 좋겠지?” “응.” “집에서 나라에게 책도 읽어 주고 이야기도 해주는 엄마면 더 좋겠다. 그치?” “응, 엄마.” 심성이 곱고 여린 면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아이였다. 아이가 필요할 때 엄마 자리가 비어 있을 때가 많았구나! 아이 교육에 문외한인 남편보다 난, 점수를 못 받고 있었다. 적어도 큰아이는 엄마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종알거리는 작은아이가 말도 생각이 난다. “엄마, 오늘 참기육 가지마! 집에 있어야 돼?” “알았지?” “약속!”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에 꽂! 도장까지 찍고 나서야 유치원 차에 오른다. 나갔다가 시간을 못 맞추는 날이면 밖에서 꼬박 엄

마를 기다려야 했던 녀석이었다. 유치원 갔다 온 오후에 나갈 일이 생기면, 작은 아이는 일의 불모가 된다. “엄마, 나 참기육학기모해(참교육학부모회를 다섯 살 까지 이렇게 불렀다) 가기 싫어!” 버스를 타고 당산동에 도착할 즈음이면 녀석은 곤한 잠에 빠질 때가 많다. “일어나, 해나야.” 비실거리며 일어나는 아이 손을 끌고 사무실로 향하거나, 아니면 안고 가서 자고 있는 아이를 책상 위에 얹혀 놓곤 했다. 사무실 가는 차가 보이면 으레 당부하는 말.

“엄마, 나 자면 책상 위에 눕히지 마!” 거의 협박조다.

몇 달 지나면 소위 불혹이라는 40이 된다. 서른 여섯부터 준비를 해왔다. 담당하고 의연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방황도 많았고 아픔도 있었지만, 잘 보냈고 제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40을 난, 매혹적인 나이로 생각해 왔다. 젊음 때문에 덤으로 얻어지는 걸모습의 화려함도 벗고, 30대의 가사노동에서도 어느 정도 짐을 던, 그래서 진정한 ‘나’를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출발점. ‘나’를 살고 싶은 욕구가 강했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의 테두리에서 작업을 해오던 내게 아이의 한마디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 이웃이 보는 ‘나’는 어떠한가? 이 여름에 난,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내 주위와 내 가족, 그리고 나의 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 재충전이 필요하다. 씩씩하게 걸어가야 하니까.

김미성(경기도 부천시)

◇ 교육의 창

자원봉사는 미래의 시민가꾸기

5·31 교육개혁위원회의 중·고등학생 종합생활기록부 자원봉사활동 기록 제도와 방침 발표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성화 여건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다. 비록 자원봉사가 성적 산출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를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이 국민교육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나 이를 받아들이는 단체나 기업체 등에서 ‘형식적인 도장찍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지만 시행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잡음때문에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가 무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학업에만 매진하던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를 이해하고 남을 돕는 마음을 기를 수 있으며 사회에 한 몫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같은 다원적 가치관을 체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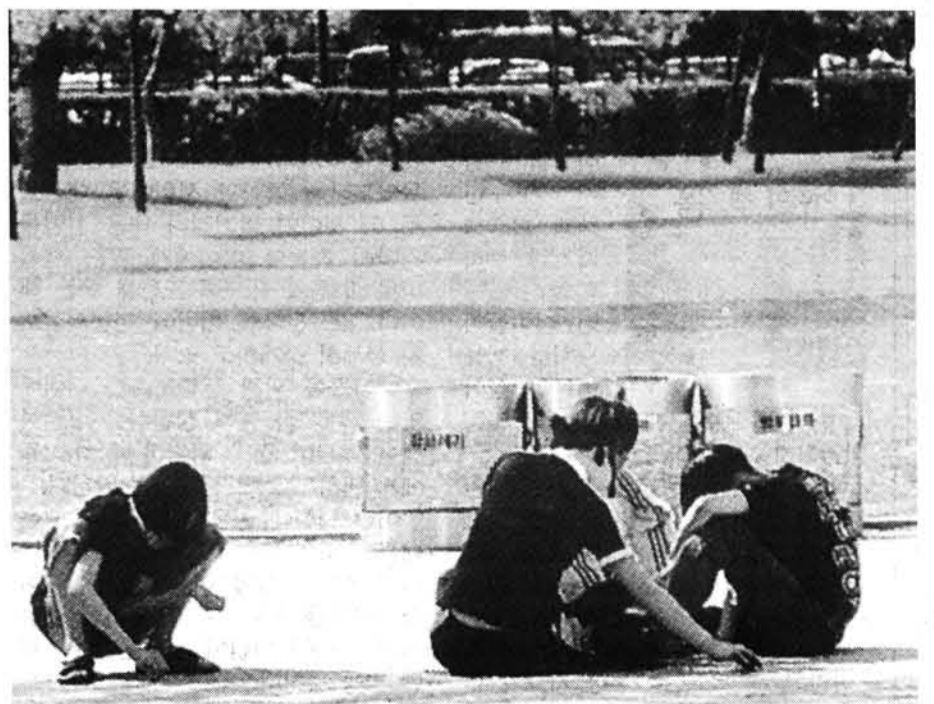
또한 나 혼자만이 잘 살아야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은 건강한 시민의식의 발로이며 책임임을 인식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원봉사는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제 중 하나인 세계화, 인간화를 구현하고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아가는 지구촌 공동체의 주역으로서 지성과 덕성을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으로 가능할 수 있는 텃밭을 제공한다. 이는 곧 학력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개혁의 작은 씨앗인 것이다.

이러한 자원봉사의 본질적 의미와 필요성을 사회 전체가 이해하여 학생들의 미래의 사회체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도 자신이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성적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버리고 자원봉사의 본래 취지를 잘 깨달아 미래의 사회체험 활동을 미리해 보는 연습으로 삼기 바란다.

연민이(학생논술신문기자)



◇ 자원봉사를 통해 다원적 가치관을 얻을 수 있다

포커스

교사에 의한 원 성추행?

김맹규(전교조 서울지부)

‘황수연씨 구속 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명동성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 최근 2~3년간 접수된 교사 성추행의 상담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이것과 관련하여 컴퓨터 통신 하이텔과 천리안의 토론실에서 학교내 성추행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중 학교내 교사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 남교사 휴게실에서 50대 주임교사가 휴학생들을 체벌하면서 한 학생의 치마를 걷고 손바닥으로 그 학생의 허벅지를 5대 때렸다. 이 학생이 성추행으로 인식하고, 학생들이 분노, 여교사 사이에 어떻게 다

루어야 할지 고민함. <서울 00여중 0선생 전화제보> → 체벌도 그 방법이 비교육적이고 학생이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는 수준이라면 충분히 성추행 범죄의 일종으로 봐야 하고 실제로 체벌을 빙자한 성추행은 학교현장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 60대 초등학교 남교사가 5학년 여학생을 불러 가슴을 더듬거나 가슴을 막 만지면서 장난을 치는 것 등의 행동 <하이텔 kiss 082의 토론> → 어린 여학생의 몸을 더듬는 성추행으로 봄.

◇ 중학교 3학년 입학했을 때 한 남자선생님이 그런 쪽으로 유명했다. 몇몇 공부 잘하는 아이들 입술에 키스를 한 다던가 아니면 허벅지를 쓰다듬는다던가. 지나고 생각하니 분명히 변태적이다 <하이텔 MOLLY의 토론> → 이런 류의 교사들이 간혹 한 명씩 있다는 게 크나큰 문제이다.

◇ 87년 7월 1일 재단비리척결과 폭력교사 추방을 이슈로 첫 번째 여교생 시

위가 시작되었는데 시위가 진행되던 7월 3일 몇몇의 학생들이 체육교사에 의해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 교사를 교단에서 내몰기 위해 50여일 간의 시위, 야간농성 등을 했지만 교육청은 나 몰라라 했다. <하이텔 2233221의 의견>

◇ 학생주임이 여자애들 체벌할 때 가슴을 퍽! 때린다. <하이텔 KKJY9의 토론>

◇ 초등 6학년 시절(89년), 담임(40대 중반, 남자)은 키가 크고 성숙한 여자 아이들을 꺼안고 엉덩이를 두드리고 “시집가야겠네” 하면서 추행 아닌 추행을 해왔다. <하이텔 4143414의 의견> → 초등 6학년 여학생은 어린아이가 아니며, 지금도 어디선가 똑같은 모습의 교사들이 존재할 것이다.

긴 토론을 극히 축약해 버렸는데 아

무튼 정말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나는 우리 교육계가 위로부터 아래에 까지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심각한 반교육과 반인권의 늪에 빠진 지 오래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다. 특히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미명하에 언어를 통하여, ‘만지고 더듬는’ 행동을 통하여, 또 체벌을 통하여 성희롱하고 성추행하는 ‘저질’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현실에 참으로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대책이 없을까? 통신인들의 경험에 근거한 위의 사례들에서 짐작되듯이 교사는 쉽사리 성추행 범죄로 처벌받거나 사회적인 비난을 감수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학교 안에서 교육을 빙자하여 횡행되는 성폭력을 방관해야 할지 극히 난망하기만 하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성추행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여 남녀학생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이 하루빨리 행해지지 않는다면 해결책이라는 것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 회원이야기--아버지 역할 강조하는 이승한씨

현장학습 강조 학운위 활동도 열심히



“학교 일은 아빠들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엄마들은 아이들 뒷바라지에, 집안 일에 항상 쫓기다 보니 회의 때 보면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어머니들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남자, 시인들과 가끔씩 만나 인생을 얘기하기 좋아하고 사진찍기와 낚시를 취미로 여기는 자유로운 남자, 이 사람이 바로 답십리 장안평 고미술 상가에서 ‘고방원’이라는 고미술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한(37, 동북부지부 회원)씨다.

여느 아버지들 같으면 자녀교육 문제는 으레 어머니 몫으로 간주하며 뒷전에 머물게 마련이건만, 이승한씨는 경우가 좀 다르다. 큰아들 시아(초등 1년)의 입학 앞두고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 이를테면 촌지문 제라든가 선생님의 편애, 그에 편승한 학부모들의 노예근성 등에 대한 얘기들을 들으면서 교육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아이의 입학을 계기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에 참여할 생각으로 부인 홍희경(36, 전업주부)씨를 제치고 본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이다. 물론 그도 지부활동에 그리 열심히 참여하지 못하지만 아버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감히 ‘저녁모임’을 제안하기도 할 만큼 적극적인 ‘아버지’ 회원이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크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또 반장을 하거나 공부 잘하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단 분명히 자기

길을 잘 찾아갈 거라는 믿음은 가지고 있죠. 무엇보다 부모들이 만들어 주는 교육환경이 좋아야지요. 총칼 같은 장난감 사주고 폭력비디오 보여주면서 선량한 사람 되라는 게 좀 모순 아닙니까?”

틈 나면 아이들과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보여주고,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도 관심을 갖도록 해주려고 애쓰는 이승한씨는 자연 속에서 현장학습을 하는 게 최고라고 강조한다.

현재 학운위 학부모위원이기도 한 그는 몇 번의 학운위 모임을 해본 결과 여개가 무겁단다.

“교장선생님이 마음을 열고 학운위를 받아들여야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동안 육성회 활동을 하던 학부모들이 위원이 된 경우가 많아서인지 좀 바른 소리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니 막막하기도 하고 이러다 잘못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미 방향은 설정되었고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시작된 거니까 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오빠보다 더 겁없고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시아(유치원), 공부보다는 체력단련을 위해 태권도를 더 열심히 배우는 시아에게 아버지로서 이승한씨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소질이 있단다. 남들과 똑같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이 너희들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거라.”

〈이영미 기자〉

우리교육

서울시 종로구 무악동 9-13
영입부 730-1273

쑥쑥문고12

400년 전, 레오나르도가 아이들에게 들려 준 73가지 이야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 동화



『모도주의 복수』 중에서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어린이를 위해 쓴 우화

레오나르도는 모나리자를 그린 화가일 뿐 아니라 기술자, 발명가, 조각가, 건축가이며, 물리·수학·해부학·역학·식물학 등 여러 분야에도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항상 공책을 들고 다니며 관찰한 것을 꼼꼼이 적었던 레오나르도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치밀한 자연 관찰을 바탕으로 한 73편의 동화는 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의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어의 눈물』 중에서

학부모가 읽어 주면 효과적인 동화

짧은 호흡으로 가뿐하게 읽을 수 있는 73편의 레오나르도의 동화는 교훈이 전면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더 많은 재미를 줍니다. 또,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인 묘사를 한 이 이야기들은 보다 많은 상상력을 키워 줍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 속에 내포된 의미를 감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한 편 한 편이 짧막해서 지루하지 않으며, 재미있는 삽화는 아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 줄 것입니다.



『악어의 눈물』 중에서

쑥쑥문고는 기존의 동화책과는 다릅니다

『쑥쑥문고』는 저학년 어린이의 수준에 맞는 좋은 글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학년 어린이들이 책읽기에 가장 편안한 글자 크기와 재미있는 삽화로 꾸며져 있습니다.

『쑥쑥문고』는 기존의 동화책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저학년 어린이를 위한 동화집입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 지음
신미원 옮김
값 4,800원

학부모, 자녀 위한 8월 행사

서울 중서부 지부

(참가비 없음)

• 문의: 0344) 965-3350

8월 월례강좌

- 일시: 8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 장소: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 준비: 도시락, 음료수
- 문의: 386-7631

고양지부 준비모임

공양왕릉 답사

- 일시: 8월 9일 금요일
오전 9시
- 강사: 김성호
- 준비: 도시락, 음료수

인천지부

신나는 미술교실(신나영)

- 일시: 8월 14일 - 16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대강당
- 회비: 1만원
- 대상: 초등학생 누구나
문의: 525-834

할 것인가

(여성의 전화 장혜숙 사무장)

- 일시: 8월 14, 15일
오후 2시 - 4시
- 장소: 학부모회 사무실
소강당
- 회비: 5천원
- 대상: 학부모 누구나

대구지부

부모들을 위한 성교육

- 일시: 8월 9일 금 오전10시
- 강사: 최정숙
- 장소: 법원 앞 범어빌딩 4층

학부모의 자녀 성교육 어떻게

영상연수 안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문화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비디오 촬영 및 편집을 위한 연수를 실시합니다.

1. 비디오작품 제작의 이해
 - 기획·구성·대본과장에 따른 제작 흐름
2. 비디오의 기술적 특성, 촬영에 대하여
 - 비디오의 기술적 특성
 - 비디오 카메라 구조의 기능
 - 촬영방법의 기초
 - 화면의 종류
 - 컷과 영상문법
 - 촬영상의 유의사항
 - 참고사항
3. 비디오 편집에 대하여
 - 비디오 편집에 들어가며
 - 영상편집 기제와 연결방법
 - 음성 및 자막을 넣는 기제와 방법

- ▶ 기 간 : 8월 11일~14일, 10시~18시
- ▶ 장 소 : 당산동 전교조 문예원 연습실
- ▶ 참가비 : 10만원(숙박하는 경우), 8만원
- ▶ 문 의 : 참교육 학부모회(675-9068)

7월 행사 모음

고양지부 준비모임

- ▶ 고양지역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4월 23일 (50명 참석)
- ▶ 고양지역 학부모 강좌-6월 3일 월 - 7월 1일 월(주 1회) 86명 강좌신청 -성교육, 미술교육, 미디어교육, 글쓰기 지도, 학운위 강좌-
- ▶ 강좌후 소모임 구성-(주1회) 3회 진행중
7월 8일 월: 글쓰기 소모임 (16명 참석)
7월 11일 목: 미술 소모임 (12명 참석)
7월 12일 금: 역사탐방 소모임 (13명 참석)
- ▶ 준비위원회 구성: 7월 22일 -각 부서장 역할분담

서울 관악동작강남지부

- ▶ 7월 월례회 보고
주제- 방학생활 아이들과 어떻게 해보세요

일시- 7월 16일

강사- 정은주 회원

내용- 비눗방울놀이하기,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텃밭에 농사짓기, 아파트 주변 식물이를 알기, 이름표 달아주기, 허물 벗는 재미 관찰하기, 겪은 일 글로 써 보기, 우리 노래 배우기

서울 중서부지부

7월 월례강좌

내용-1.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학업중퇴 청소년에 대한 대책,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운동에 대한 과제
2. 지역사회 복지관과 학부모운동의 결합에 대한 새로운 활로 모색

▶ 어린이 여름방학 특강 '초등 학교 연극교실'

강사: 최지영 (교육연구전공)

일시: 7월 22일 - 26일

인천지부

- ▶ 7월 16일: 상반기 평가를 위한 총회
- ▶ 7월 23일: '후회없는 방학생활 이렇게' (노미화선생님)
- ▶ 7월 28일 - 31일: 여름학교 '풀벌레 우는 교실' 경기도 남양주 서림수련원

학부모신문에 참여합시다

학부모신문에서는 함께 활동할 기자, 통신원, 모니터요원을 모집합니다.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연락처: 634-6508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이 됩시다

• 학부모의 올바른 교육참여 속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 교육의 한 주체로서 바로 서고자 합니다.
- 내 아이만을 위하는 이기심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밝게 커나갈 교육환경을 만들고자 앞장섭니다.
- 선생님께 돈봉투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심을 가집니다.

▶ 회원이 되면

-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며 참교육의 뜻에 찬동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회비는 매달 5천원 이상 원하시는 만큼 정해서 내시면 됩니다.
-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 회비를 내려면 은행지로 창구에 있는 지로용지에 지로번호 7605806을 적어 보내시고 사무실에 확인전화를 해주십시오.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정회원:매달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
- 후원회원:본회의 뜻에 동참하며, 본회의 강좌 또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회원
- 자료회원 (신문회원): 각종 자료 (신문, 지부·지회 소식지, 본회 발행 교육관계자료)를 받아보며 소정의 자료비를 납부하는 회원

(주)코치스쿨
Korea Computer Help Instruction School

성남:3444-0320, 3444-0324



ICAI

인공 지능학습 부모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개별 학생에 대한 학습 과정 조력 및 학생 수준, 과제별 약 강점 진단 기능 -- 전국 14개 학교에서 운영중

코치스쿨 학습 시스템 원리

1. 시험 대비 시스템
2. 학년의 벽을 뛰어넘는 무학년 시스템
3. 개인 교사보다 뛰어난 개인지도 시스템
4. 내 약점을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 확인 시스템
5. 중년이 어엿할 때까지 되돌려 공부시키는 피드백 시스템
6. 목표이해 학습법
7. 스몰 스텝 학습법
8.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임식 학습법
9. 알아서 공부하는 힘을 길러 주는 자율 학습 시스템
10. 자신의 페이스에 맞추는 마이 페이스 학습법

코치스쿨 관리 시스템 원리

1. 학습계획실천분석:학습 계획에 의한 학습 실천 확인
2. 주간학습시간분석:주간 중 학습 시간 및 과목별 학습 시간 분석
3. 주간학습결과분석:주간 중 학습 결과, 과목별 예습, 복습 결과 분석 및 확인
4. 주간학습성과분석:주간 중 학습의 성과를 과목별로 성실도, 정확도, 집중도를 확인
5. 일일학습결과분석:일일 학습결과, 보충학습이 필요한 주제 확인 및 분석
6. 주간학습계획작성:과목별로 학습할 범위 지정
7. 월간학습결과분석:일일, 주간, 월간 학습 결과를 요일별로 확인
8. 주제별완성도분석:학습한 내용의 문제들 중 학습 역사 및 구체적인 분석 및 확인
9. 부진한문제들분석:학습한 내용 중 지정한 기준 점수 미달 문제 확인 및 분석
10. 부진한문제들분석:학습한 내용 중 부진한 문제유형 확인 및 분석
11. 학습환경지정:과목별 학습 시간, 한 문제 해결 시간, 주단위 예 복습 과목을 지정